

# “할라, 마드리드”

# 음바페 ‘꿈의 구단’ 입성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25)가 8만여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에 입성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 파리생제르망(PSG)을 떠나 스페인 프로축구의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16일(현지시간)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음바페 입단식을 열고 환영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09년 7월에도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적한 세계적인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에 대해 대대적인 환영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음바페는 자신의 우상인 호날두가 과거 레알 마드리드에서 달았던 배번 9번을 물려받았다.

구단은 앞서 3일 음바페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으며,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4)가 끝난 뒤 입단식을 열게 됐다.

음바페는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한 뒤 훈련장으로 이동해 카를로 안첼로티(이탈리아) 레알 마드리드 감독과 앞으로 그라운드를 함께 누빌 동료들과 인사를 했다. 이어 입단식이 열리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도착했다.

8만여 팬들이 하얀색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입장하는 음바페의 이목을 연호하며 뜨겁게 환영했다. 대형 전광판에는 ‘환영해요, 음바페’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음바페는 “할라 마드리드(안녕하세요 마드리드)”를 외치며 팬들과 교감했다. 음바페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영상과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음바페의 우상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그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기에 그는 이번 이적에 대한 감회가 남다른 모습이었다. 2022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영입 직전까지 다다랐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PSG의 강한 만류로 음바페는 잔류를 택했다.

이후 지난해 여름부터 다시 음바페의 이적이 다시 진전되기 시작했다. PSG의 계약 요청과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알힐랄이 3억 유로(약 4255억 원)의 이적료와 7억 유로의 연봉을 제시했지만 음바페는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를 택했다.

어릴 적부터 레알 마드리드 입단이 꿈이



R마드리드 홈구장서 입단식 호날두 달았던 9번 물려받아 8만여 팬, 이름 부르며 환영 “팀과 유니폼에 인생 바칠 것”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공격수인 킬리안 음바페가 16일(현지시간)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거행된 공식 환영식에서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있던 카메룬 이민자 출신의 음바페는 스페인어 공부를 열심히 해 왔다. 그는 통역 도움 없이 유창한 스페인어로 입단 소감을 밝혔다. 음바페는 “나에게 놀라운 날”이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마드리드에서 뛰는 것이 꿈이었다. 오늘 드디어 이곳에 왔다.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감격스러

워했다. 이어 “이제 또 다른 꿈이 생겼다. 세계 최고의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에 부응하는 것”이라면서 “이 클럽과 유니폼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우승하기에 좋은 곳은 없다. 감독이 원하신다면 어디에서든 뛰겠다. 포지션은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이적시장에서 초대형 이적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여름 1억 300만 유로(약 1550억 원)를 투자해 주드 벨링엄(잉글랜드)을 품었고 이번 이적시장에서는 마침내 킬리안 음바페를 영입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US오픈 패배 뒤 전화번호도 바꿨다”

매길로이 “우즈 메시지도 못박”  
브리티시 오픈 전 기자회견



남자 골프 세계랭킹 2위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지난달 메이저 골프 대회 US오픈에서 우승을 놓친 뒤 전화번호까지 바꾼 사실을 털어놓았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매길로이는 제15회 브리티시 오픈 개막을 하루 앞두고 17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로열 트루 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피하려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보내 격려 메시지조차 최근에는 못 봤다”고 말했다.

매길로이는 6월 미국 파인허스트 골프 앤드 리조트에서 열린 US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우승을 눈앞에 뒀으나 짧은 퍼트를 몇 차례 놓치면서 브라이슨 디샬보(미국)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특히 매길로이가 18번 홀(파4)에서 1.2m 거리의 파퍼트를 놓쳐 보기를 한 것이 결정적인 패배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길로이는 “US오픈이 끝난 뒤 이틀 후에 전화번호를 바꿨다”며 “오늘 우즈가 말해주기 전까지 격려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매길로이는 “내 인생에서 우즈는 놀라운 존재다. 기쁠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좋은 메시지를 보내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기자들의 요청에 우즈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우즈는 “나도 많은 퍼팅을 놓쳤다. (은퇴한 미국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도 많은 샷을 놓쳤다. 중요한 것은 계속 워닝샷을 쓰는 거다. 그리고 나도 여전히 마지막 퍼트를 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스카이텔레비전·연합뉴스

## “술 취해서 그만…” MLB 국가제창 망친 美 가수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런더비 경기에서 미국 국가를 엉망으로 불러 논란을 일으킨 컨트리 가수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언론과 온라인에 게시된 현장 영상에 따르면 미 컨트리 싱어송라이터 잉그리드 앤드레스(32)는 전날 저녁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올스타전 전야제 홈런더비 경기에서 국가를 불렀지만 가수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음정이 계속해서 틀렸고, 고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며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시종일관 힘겹게 노래를 이어가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 공연 영상이 확산하면서 가창력 논란과 함께 술에 취한 것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앤드레스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겠



15일(현지시간) MLB 홈런더비 경기에서 국가 부르는 잉그리드 앤드레스. AP=연합뉴스

다. 나는 어젯밤 취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젯밤에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알코올중독) 치료 시설에 입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매체 ESPN에 따르면 앤드레스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뉴욕 메츠 등에서 일했던 전 메이저리그 코치 브래드 앤드레스의 딸이다. 스카이텔레비전·연합뉴스

RomaRo  
GRAND QUALITY

Alcobaça ASA WEDGE LADY

Confidence in the Short game.

Alcobaça  
ASA WEDGE LADY

www.romarogolf.co.kr